



[우유급식] 美 하원 50여명, 농무부의 저지방우유 학교 급식 확대 지지

- 어린이들의 유제품 섭취량 보충 및 영양공급 목적...낙농업계 환영



미국 하원에서 어린이들의 유제품 섭취를 늘리기 위한 목적으로 우유 급식 공급 확대를 요구한 것에 대해 낙농업계가 환영의 뜻을 표했다.

현재 농무부가 2021-22학년도에 저지방 가공유를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한 가운데, 최근 50명 이상의 초당파 의원들이 농무부(USDA) 장관에게 서한을 보내 영구적으로 이를 공급할 수 있는 유연성을 마련해줄 것을 요청했다.

해당 의원들은 지난해 말 발표된 식생활지침을 인용해 9세부터 13세까지 어린이들 중 79%가 권장 유제품 섭취량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학교에서 공급하는 우유의 종류를 확대함으로써 부족한 유제품 섭취량을 보충하고 영양소 공급을 통해 식단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.

이에, 전미낙농식품협회(IDFA)와 미국낙농가연합(NMPF)은 어린이들의 유제품 섭취를 확대하기 위한 하원의원들의 노력에 찬사를 표하며 저지방 가공유 공급 확대를 통해 어린이들에게 필수 영양소를 제공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. < 출처 : perishablenews.com, 5월 27일 >

[업계동향] 사푸토社, 소비 트렌드에 맞춘 기업 인수 추진

- 비건 치즈 회사 및 단백질 생산 설비 인수



식물성 대체식품 및 부가가치 제품에 대한 수요가 급증한 가운데, 캐나다 최대 유업체인 사푸토가 변화하는 소비 트렌드에 발맞춰 기업 인수에 나섰다.

먼저, 사푸토는 식물성 대체식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니즈를 충족시키기 위해 영국의 한 비건 치즈 회사를 인수했다. 이 회사는 다양한 유제품 대체 치즈 제품의 제조부터 마케팅 및 유통까지 소매 및 식품 서비스 시장 부문을 아우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.

이어, 사푸토는 미국 위스콘신주에 위치한 단백질 생산 설비를 인수기로 결정했는데, 이 시설은 유기농 유당, 유청 등 유제품의 부가가치 성분 제조시설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.

업체측은 이번 인수를 통해 유제품의 부가가치화는 물론 브랜드의 포트폴리오를 강화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. < 출처 : dairyindustries.com, 5월 26일 >

위 내용은 세계낙농동향을 전파하기 위해 해외 낙농사이트에서 뉴스를 발췌해 번역한 것으로 낙농진흥회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 또한, 위 내용을 기사 작성시 활용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해 주시기 바랍니다.